

경호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염대관* · 김창호** · 김우진***

〈요 약〉

본 연구는 경호전공 대학생 중심으로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 변인들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진로탐색과 진로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호전공 대학생 239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만족은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만족과 일반적 만족은 진로결정과 진로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인식은 진로흥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결정, 진로확신은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흥미는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과만족은 진로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과만족은 진로확신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관계만족은 진로흥미를 통하여 문제해결, 정보수집과 계획설정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일반적 만족은 진로결정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수집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경호학에서의 시사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경호전공,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구조방정식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 경기대학교 강사

| 목 차 |
|-----|
|-----|

- | |
|---------------------|
| I. 서 론 |
| II. 이론적 관계모형 및 연구가설 |
| III. 연구방법 |
| IV. 연구결과 |
| V. 논의 및 결론 |
| VI. 제 언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범죄는 그 수법이 지능화, 신속화, 흉포화 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행되며 목적 없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유미, 2013; 백경화, 유경호, 2011; 노성훈, 2010; 박정선, 2007). 이러한 추세에 맞춰 최근 경호·경비의 수요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요와 공급 역시 다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기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경호산업은 많은 양적 성장을 도모해 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영현 등(2013)은 경호·경비요원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여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경호·경비원의 낮은 전문성은 국내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호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준석 등, 2007; 정성숙 등, 2007).

이러한 전문교육기관 중 경호관련 학과는 경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 전공자는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향후 경호관련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적자원이며 이들의 개인적 가능성과 잠재능력의 개발은 향후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재학 중 가장 큰 관심사로 취업문제를 꼽고 있다. 진로란 일생동안의 직업발달과정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생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충기, 1996). 실제로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로 결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또한 경호전공대학생들이 입직하기 이전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진로의식은 입직이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영현 등, 2013, 강민완 등, 2006).

따라서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는 성숙된 진로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호전공 대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며 이에 맞는 진로 및 취업 준비를 해나가는 것은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선결사항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특정과제와 관련하여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능력 혹은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Taylor & Bentz, 1983). 기존의 진로 자기효능감이 수학, 과학 혹은 공학 계열과 같은 특정 진로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의미하였다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개념으로써, 특정 과제에 적용되었던 진로 자기효능감을 일반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발전 시켰다. 특히 Taylor와 Bentz(1983)는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유사하며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수량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 하였다.

한편, Hackett과 Bentz(1981)의 주장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인지적,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하는데 유용하며 진로행동과 진로결정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후천적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며(이종찬, 2013) 다양한 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전공만족과 진로 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로 연

구되어 왔다(박인주, 장기성, 2014;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김사라형선, 2013; 김우경, 김응준, 2012; 양진희, 김봉환, 2008; 이정애, 최웅용, 2008). 또한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전공만족,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공만족은 본인이 소속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이며, 진로의식 형성과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공에 관련된 만족도가 긍정적인 경우 진로를 결정하는데 안정적이며 자기 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전공에 대한 만족감은 심리적 안정과 진로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예측요인으로 제시된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지하는지 또는 진로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이 분명한 개인은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호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진로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한다(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호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나 만족도의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과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어떤 특성들이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직접효과만을 검증하거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경호전공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진행된 연구는 매우 제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며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관계모형 및 연구가설

1. 전공만족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정체감은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모호한 환경적 상황에 직면하여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자기 확신과 관련이 깊다(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이러한 진로정체감의 예측변수로서 전공만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공만족은 고등교육기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학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해 측정되거나(신성규, 2011; 주운주 등, 2011) 학과몰입, 직업탐색활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등의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 전공 대학생의 전공 만족에 관한 연구는 실태 또는 평가조사(김창호, 2008; 김창호 등, 2006)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조철규, 2011)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전공만족은 교과만족, 교수와 학생의 관계만족, 인식만족 등으로 측정되며 이는 진로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적 만족 및 사회인식만족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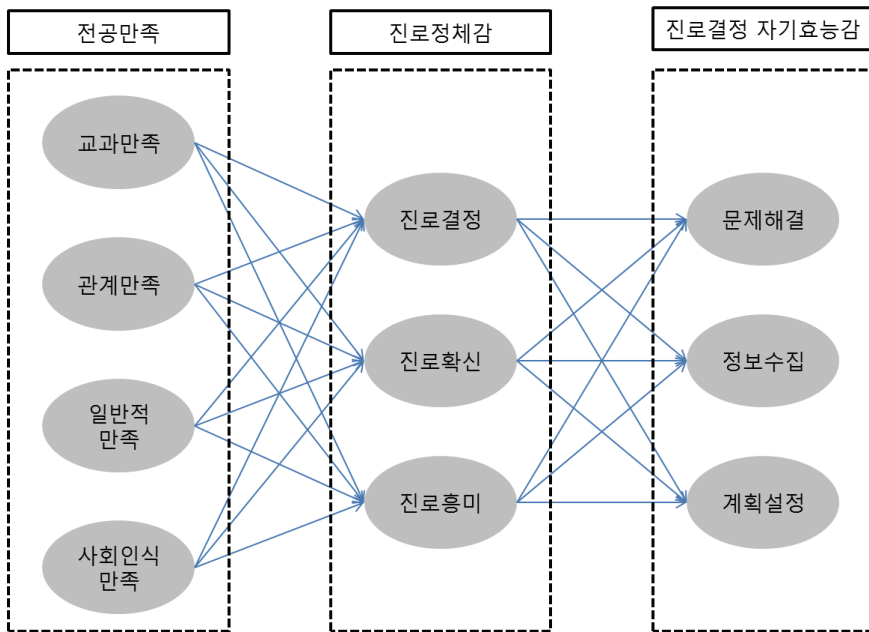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적 요인이 기반 되어야 한다. 여기서 내적 요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적 예언력을 바탕으로 하며 진로 목표 성취와 관련된 신념 또는 유능감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이현주, 2000) 진로정체감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희, 김봉환, 2008).

또한 진로정체감의 결과변수에 대한 연구는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등과 같은 효능감에 맞추어져 진로정체감이 증가할수록 진로와 관련된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다(이정애, 최용용, 2008). 하지만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이들 관계에 대한 이론적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I.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미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였고 이와 관련된 개념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주요변수 조작화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의 일종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특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지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며 진로 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심리적 기제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정규, 2006).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를 활용하였다. CDMSE의 하위요인은 문제해결(5문항), 정보수집(5문항), 계획설정(5문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을 구성한 척도는 매우그렇다(5)~전혀아니다(1)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2)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변수는 진로정체감이다. 진로정체감은 Erickson(1963)이 자아 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직업적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지하는지 또는 진로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지하는지 또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olland, Diager 와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 하위요인은 진로결정(4문항), 진로확신(4문항), 진로흥미(4문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을 구성한 척도는 매우그렇다(5)~전혀아니다(1)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3)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는 전공만족이다. 전공만족이란 ‘현재 자신의 전공을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박상진, 이재영, 2011).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혜숙(2000), 김영현 등(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은 교과만족(4문항),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4문항), 학문의 일반적 만족(4문항),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족(5문항)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을 구성한 척도는 매우그렇다(5)~전혀아니다(1)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경호학 전공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다음 유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표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작위로 선택 된 서울 경기 소재 대학(5곳)을 직접 방문하여 경호전공 대학생을 표집 하였다. 둘째,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셋째, 배포한 설문지 300부중 250부가 회수(회수율: 83.33%)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39부(79.67%)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은 189명(79.08%), 여성은 50명(20.92%)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은 79명(30.05%), 2학년은 68명(28.45%), 3학년은 45명(18.82%), 4학년은 47명(19.6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방법

표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0.0과 AMOS 22.0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당성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판정을 위하여 χ^2 값 보다는 TLI(9이상), CFI(9이상), RMSEA(.10미만)등을 기준으로 하였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래핑(bootstrapping¹)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본

추출을 통해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우종필, 2012).

4.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는 2단계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설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잠재변수 즉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미, 교과만족,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학문의 일반적 만족,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만족에 공분산을 설정하였고 요인부하량, AVE값과 개념신뢰도 값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모형의 CFA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성분석을 위하여 CFA를 실시하였다. CFA에 의해 측정구조 형태가 강하게 가설화 되기 위해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양한 적합도 기준 중 χ^2 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적합도(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383.002(p=.000)$, TLI=.933, CFI=.947, RMSEA=.085)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요인부하량 모두 .5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AVE³⁾값 및 개념 신뢰도⁴⁾값 모두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수렴타당도를 확보하였다(<표 1> 참조)

1) 본 연구에서 설정한 Perform bootstrap은 1000이며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는 95이다.

2) 본 연구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올리기 위하여 MI값(Modification Indices)을 참고하여 문제해결의 1번과 3번 문항, 진로확신의 2번과 4번 문항, 교과만족의 1번과 5번 문항에 공분산 설정을 허용하였다.

3) AVE의 값은 .5이상일 경우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AVE공식은 다음과 같다.

$$AVE = (\sum \text{요인부하량}^2) / [(\sum \text{요인부하량}^2) + (\sum \text{오차분산의 합})]$$

4) 개념신뢰도의 값은 .7이상일 경우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개념 신뢰도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개념신뢰도} = (\sum \text{요인부하량})^2 / [(\sum \text{요인부하량})^2 + (\sum \text{오차분산의 합})]$$

〈표 1〉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및 신뢰도

| 잠재변수 | 관측변수 |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 표준화 요인부하량 | AVE | 개념 신뢰도 |
|------|-------|---------------|--------------|------|-----------|
| 문제해결 | 문제해결1 | 1 | .814 | .644 | .899 |
| | 문제해결2 | 1.027*** | .821 | | |
| | 문제해결3 | .639*** | .616 | | |
| | 문제해결4 | .968*** | .763 | | |
| | 문제해결5 | .935*** | .745 | | |
| 정보수집 | 정보수집1 | 1 | .863 | .704 | .922 |
| | 정보수집2 | .936*** | .722 | | |
| | 정보수집3 | .724*** | .801 | | |
| | 정보수집4 | .837*** | .774 | | |
| | 정보수집5 | 1.064*** | .868 | | |
| 계획설정 | 계획설정1 | 1 | .851 | .654 | .903 |
| | 계획설정2 | 1.047*** | .839 | | |
| | 계획설정3 | .842*** | .694 | | |
| | 계획설정4 | .809*** | .675 | | |
| | 계획설정5 | .937*** | .863 | | |
| 진로결정 | 진로결정1 | 1 | .779 | .656 | .884 |
| | 진로결정2 | 1.184*** | .861 | | |
| | 진로결정3 | 1.214*** | .883 | | |
| | 진로결정4 | .846*** | .771 | | |
| 진로확신 | 진로확신1 | 1 | .651 | .582 | .847 |
| | 진로확신2 | 1.131*** | .723 | | |
| | 진로확신3 | 1.139*** | .688 | | |
| | 진로확신4 | 1.325*** | .760 | | |
| 진로흥미 | 진로흥미1 | 1 | .780 | .551 | .831 |
| | 진로흥미2 | .921*** | .727 | | |
| | 진로흥미3 | 1.074*** | .729 | | |
| | 진로흥미4 | 1.010*** | .790 | | |
| 교과만족 | 교과만족1 | 1 | .845 | .602 | .858 |
| | 교과만족2 | 1.060*** | .745 | | |
| | 교과만족3 | 1.010*** | .790 | | |
| | 교과만족4 | 1.111*** | .845 | | |

| 잠재변수 | 관측변수 | 비표준화 요인부하량 | 표준화 요인부하량 | AVE | 개념 신뢰도 |
|------|-------|---------------|--------------|------|-----------|
| 관계만족 | 관계만족1 | 1 | .756 | .500 | .799 |
| | 관계만족2 | .921*** | .727 | | |
| | 관계만족3 | 1.080*** | .652 | | |
| | 관계만족4 | 1.242*** | .795 | | |
| 일반만족 | 일반만족1 | 1 | .674 | .507 | .804 |
| | 일반만족2 | 1.168*** | .697 | | |
| | 일반만족3 | 1.325*** | .776 | | |
| | 일반만족4 | 1.411*** | .812 | | |
| 사회만족 | 사회만족1 | 1 | .646 | .651 | .902 |
| | 사회만족2 | 1.215*** | .748 | | |
| | 사회만족3 | 1.362*** | .851 | | |
| | 사회만족4 | 1.608*** | .809 | | |
| | 사회만족5 | 1.221*** | .868 | | |

*** $p < .001$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하였다. AVE의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한다(우종필, 2012).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AVE값(500~704)이 상관계수 제곱값(.026~.494)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표 2> 잠재변수의 상관관계와 판별타당도

| 변수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1) | .644 | | | | | | | | | |
| (2) | .451 (.203) | .704 | | | | | | | | |
| (3) | .411 (.169) | .625 (.391) | .654 | | | | | | | |
| (4) | .144 (.021) | -.703 (.494) | .336 (.113) | .656 | | | | | | |
| (5) | .531 (.281) | .458 (.210) | .119 (.014) | .404 (.163) | .582 | | | | | |

| 변수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6) | -.236 (.056) | .555 (.308) | .211 (.045) | -.307 (.094) | .111 (.012) | .551 | | | | |
| (7) | .356 (.127) | .620 (.384) | .440 (.193) | .291 (.084) | .201 (.040) | .213 (.046) | .602 | | | |
| (8) | .599 (.359) | -.313 (.097) | .391 (.152) | .116 (.013) | .207 (.042) | -.190 (.036) | .112 (.013) | .500 | | |
| (9) | .170 (.029) | .170 (.029) | .179 (.032) | -.210 (.044) | -.191 (.036) | .031 (.001) | .161 (.026) | .245 (.060) | .507 | |
| (10) | -.471 (.222) | .587 (.345) | .222 (.049) | .431 (.186) | .333 (.111) | .091 (.008) | .312 (.097) | .333 (.111) | .198 (.039) | .651 |

주1) (1) 문제해결, (2) 정보수집, (3) 계획설정, (4) 진로결정, (5) 진로확신, (6) 진로흥미, (7) 교과만족, (8)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 (9) 학문의 일반적 만족, (10)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족.
 주2) ()은 상관계수의 제곱값, 대각선은 AVE값을 의미.

Ⅲ. 연구 결과

1.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연구가설의 경로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383.002(p=.000)$, TLI=.933, CFI=.947, RMSEA=.085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가설을 검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첫째, 교과만족은 진로결정, 진로확신, 진로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은 진로결정, 진로확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흥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문의 일반적 만족은 진로결정, 진로확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흥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은 진로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결정, 진로확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결정은 문제해결, 정보수집에, 계획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확신은 문제해결, 정보수집에, 계획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진로흥미는 문제

해결, 정보수집에 정(+)적인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획설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간접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① 교과만족은 진로결정을 매개로 문제해결(간접효과=.303**) 및 계획설정(간접효과=.207**)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수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교과만족은 진로확신을 매개로 문제해결(간접효과=.054**) 및 정보수집(간접효과=.04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획설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교과만족은 진로흥미를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관계만족은 진로결정을 매개로 문제해결(간접효과=.107**) 및 계획설정(간접효과=.067**)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수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관계만족은 진로확신을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관계만족은 진로흥미를 매개로 문제해결(간접효과=.112**), 정보수집(간접효과=.137**), 계획설정(간접효과=.07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일반적 만족은 진로결정을 매개로 문제해결(간접효과=.060**) 및 정보수집(간접효과=.05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획설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일반적 만족은 진로확신을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일반적 만족은 진로흥미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사회인식 만족은 진로결정을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⑪ 사회인식 만족은 진로확신을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⑫ 사회인식 만족은 진로흥미를 매개로 문제해결, 정보수집 및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모형의 모수 추정치

| 경로 | 모수추정치 |
|--------------------|---------------|
| 교과만족 →진로결정 | .482***(.418) |
| 교과만족 →진로확신 | .232***(.195) |
| 교과만족 →진로흥미 | .247***(.200) |
|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진로결정 | .166**(.159) |
|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진로확신 | .126*(.117) |
|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진로흥미 | .007(.006) |
| 학문의 일반적 만족→진로결정 | .168**(.158) |
| 학문의 일반적 만족→진로확신 | .189***(.172) |
| 학문의 일반적 만족→진로흥미 | .047(.042) |
|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진로결정 | -.008(-.007) |
|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진로확신 | -.034(-.030) |
|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진로흥미 | .223***(.191) |
| 진로결정→문제해결 | .057*(.081) |
| 진로결정→정보수집 | .171***(.249) |
| 진로결정→계획설정 | .051*(.078) |
| 진로확신→문제해결 | .090**(.108) |
| 진로확신→정보수집 | .177***(.216) |
| 진로확신→계획설정 | .157***(.195) |
| 진로흥미→문제해결 | .101**(.127) |
| 진로흥미→정보수집 | .186***(.240) |
| 진로흥미→계획설정 | -.032(-.042) |

주) ()은 표준화 계수 추정치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주요 변인들의 직· 간접효과(표준화 계수 기준)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교과만족 | 진로결정 | .418 | .000 | .418 |
| | 문제해결 | .000 | .303** | .003 |
| | 정보수집 | .000 | .039 | .039 |
| | 계획설정 | .000 | .207** | .007 |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교과만족 | 진로확신 | .195 | .000 | .195 |
| | 문제해결 | .000 | .054** | .054 |
| | 정보수집 | .000 | .041** | .041 |
| | 계획설정 | .000 | .052 | .052 |
| 교과만족 | 진로흥미 | .200 | .000 | .200 |
| | 문제해결 | .000 | -.050 | -.050 |
| | 정보수집 | .000 | -.041 | -.041 |
| | 계획설정 | .000 | -.042 | -.042 |
| 관계만족 | 진로결정 | .159 | .000 | .159 |
| | 문제해결 | .000 | .107** | .107 |
| | 정보수집 | .000 | .035 | .035 |
| | 계획설정 | .000 | .067* | .067 |
| 관계만족 | 진로확신 | .117 | .000 | .117 |
| | 문제해결 | .000 | .001 | .001 |
| | 정보수집 | .000 | .017 | .017 |
| | 계획설정 | .000 | .021 | .021 |
| 관계만족 | 진로흥미 | .006 | .000 | .006 |
| | 문제해결 | .000 | .112** | .112 |
| | 정보수집 | .000 | .137** | .137 |
| | 계획설정 | .000 | .075** | .075 |
| 일반적 만족 | 진로결정 | .158 | .000 | .158 |
| | 문제해결 | .000 | .060** | .060 |
| | 정보수집 | .000 | .053** | .053 |
| | 계획설정 | .000 | .030 | .030 |
| 일반적 만족 | 진로확신 | .172 | .000 | .172 |
| | 문제해결 | .000 | .013 | .013 |
| | 정보수집 | .000 | .020 | .020 |
| | 계획설정 | .000 | .019 | .019 |
| 일반적 만족 | 진로흥미 | .042 | .000 | .042 |
| | 문제해결 | .000 | .011 | .011 |
| | 정보수집 | .000 | .030 | .030 |
| | 계획설정 | .000 | .009 | .009 |

| 독립변인 | 종속변인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사회인식만족 | 진로결정 | -.007 | .000 | -.007 |
| | 문제해결 | .000 | .015 | .015 |
| | 정보수집 | .000 | .031 | .031 |
| | 계획설정 | .000 | .093 | .093 |
| 사회인식만족 | 진로확신 | -.030 | .000 | -.030 |
| | 문제해결 | .000 | .102 | .102 |
| | 정보수집 | .000 | .099 | .099 |
| | 계획설정 | .000 | .069 | .069 |
| 사회인식만족 | 진로흥미 | .191 | .000 | .191 |
| | 문제해결 | .000 | .033 | .033 |
| | 정보수집 | .000 | .038 | .038 |
| | 계획설정 | .000 | .021 | .021 |

** $p < .01$,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경호전공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공만족,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관계 규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관계만족, 학문의 일반적 만족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은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전공만족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관계만족, 학문의 일반적 만족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확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은 진로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으며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 학과의 사회적 인식만족은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흥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교수와 학생간의 만족, 학문의 일반적 만족은 진로흥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과만족은 공통적으로 진로정체감 즉 진로결정, 진로확신과 진로흥미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전공만족의 하위변인인 교과만족은 경호학과 관련된 커리큘럼 또는 교수법과 관련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과내용, 교육내용, 교수자의 지식정도, 명확한 학습목표의 제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경호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Holland(1997)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관련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며 진로흥미를 더 느낀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준오와 송주연(2011)의 연구에서도 교과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약 20% 가량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공만족의 다양한 하위요인 중 교과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장 많이 예측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공만족의 하위요인인 교과만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반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과 혹은 전공에 만족할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김상진과 김종결(2006), 김영현 등(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진로확신 및 진로흥미는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진로확신 및 진로흥미는 정보수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진로확신은 계획설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진로흥미는 계획설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결정과 진로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긍정적 진로정체감은 성공적인 진로탐색과 객관적 진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고 둘째, 긍정적 진로정체감은 진로목표를 성취하고 긍정적 진로효능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Tylor와 Popman (1990)는 진로정체감을 바탕으로 진로의사결정과 탐색 그리고 효능감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한 국내연구(양진희, 김봉환, 2008)에서도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경호전공자들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결정은 교과만족과 문제해결, 계획설정

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확신은 교과만족과 문제해결, 정보수집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은 관계만족과 문제해결, 계획설정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흥미는 관계만족과 문제해결, 정보수집, 계획설정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은 일반적 만족과 문제해결, 정보수집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성규, 2011; 주운주 등, 2011),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과 진로정체감이 심리사회적 긍정적 정서 중 하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선행하는 요인이라는 것과 진로정체감의 선후관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VI.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전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전공만족과 진로정체감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구인의 관계적 특성을 검증할 때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척도이므로 경호전공자의 특수성을 완전히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호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의식 즉 전공만족,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가 개발되어 더욱 정확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민완, 권창기, 김형승 (2006).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 12, 1-23.
- 김사라형선 (201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효과. 한국아동학회, 34(5), 43-59.
- 김상진, 김중걸(2007). 경호관련 학과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53-64.
- 김영현, 김우진, 민왕식, 양영모, 곽한병 (2013). 전공만족과 무도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 36, 57-92.
- 김우경, 김응준 (2012). 체육계열 전공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 17(2), 65-77.
- 김창호 (2008) 경호학 전공만족도와 진로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 17, 91-107.
- 김창호, 정정식, 이영오 (2006). 경호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1, 21-36.
- 김충기 (1996). 한국 진로교육의 발달과정에 관한연구. 진로교육연구, 5, 135-155.
- 노성훈 (2010). 민주주의가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다수준분석을 이용한 국가 간 비교연구.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1, 55-73.
- 박상진, 이재영 (2011).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만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8(1), 123-146.
- 박인주, 장기성 (2014). 전공실습실 환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항공서비스전공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경영연구, 60, 81-100.
- 박정선 (2007).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 비행대책.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1, 2-29.
- 박준석, 최현식, 김경태, 김상균 (2007).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13, 193-206.
- 백경화, 유경호 (2011). 경호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 29, 115-137.
- 신성규 (2011). 부산, 경남지역 보건계열 대학(교)의 전공학과별 전공만족도 비교, 방사선기술과학, 34(2), 131-140.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

-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우종필 (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유미 (2013).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1,71-84.
- 이정규 (2006).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고3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0(3), 571-586.
- 이정애, 최용용 (2008). 진로가치 명료화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9(1), 129-146.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 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6.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38(1), 235-257.
- 정성숙, 장예진, 최현식, 최동복 (2007). 경호무도 수련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호경비학회*, 14, 449-464
- 정점숙, 정미조, 유일영 (201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 27-36.
- 조준오, 송주연 (2011). 예비교사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유아교육학회*, 20(3), 287-301.
- 조철규 (2011). 경호전공 대학생의 학과만족이 진로정체감 및 직업기대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주운주, 정진아, 장윤정 (2011). 일부 치위생 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 조사. *대한치위생학회*, 13(1): 61-69.
- 하혜숙(2000).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2. 외국문헌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Hackett, G. & Cramer, S. H. (1996).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 Dia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1-12.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31.
- Taylor, K. M., & Betz, N.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Abstract】

Structural Relations of Security Science Major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Yeom, Dae-Gwan
Kim, Chang-Ho
Kim, Woo-Jin

This study aims to define structural relations of security science majors' caree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addition, as confirming immediate effects, indirect effects as well as total effects, the study offers basic materials for reasonable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program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abov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a total of 239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security science and carried ou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major satisfaction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career decision, career certainty and career interest. Second of all, the study found out that both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general satisfaction are significantly connected with career decision and career certainty. Third of all, social awareness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areer interest. Fourth of all, the study learned that in terms of career decision and career certainty, they are all significantly related to problem solv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plan development. As for career interest, the study noticed how significantly it affects both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Fifth of all, major satisfaction was observed to have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through career decision. Sixth of all, via career certainty, major satisfaction has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as well as information collection. Seventh of all,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it has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information collection and plan development through career interest. Eighth of all, career decision helps general satisfaction have mediating effects on problem solving and

information collection. Focusing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the study discussed implications in relation to security science including advices for any follow-up researches.

Key words : Security science,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tructural equation